

제8강 - 트로이아 전쟁 후 영웅들의 운명

(1교시)

◆ 아킬레우스가 갖는 의미와 영웅들의 후일담

※ 학습목표

아킬레우스가 갖는 의미와 트로이아 전쟁 후 영웅들의 뒷이야기를 알아본다.

▲ 아킬레우스가 갖는 의미

아킬레우스 이야기는 그리스 대중문화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으며 아킬레우스 승배는 그의 활약무대였던 동방 대륙 뿐 아니라 섬들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 호메로스가 그린 아킬레우스

빛나는 눈매에 금발을 한, 잘 생기고 목소리가 우렁찬 청년의 모습이다.

그는 두려움을 몰랐으며, 싸우는 것에 가장 큰 열정을 느꼈다.

아킬레우스는 격렬하며 무엇보다도 명예를 사랑했다.

→ 아킬레우스는 명예로운 삶을 사는 운명을 선택함

하지만 그의 본성에는 더 부드러운, 다정하기까지 한 측면이 있었다.

→ 아킬레우스는 광폭한 전쟁의 노예가 아님

음악가였던 그는 리라와 노래로 근심을 가라앉혔고, 친구 파트로클로스와는 깊은 우정을, 브리세이아와는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트로이아 포로들을 사형할 때나, 죽은 뒤 무덤 속에서까지 폴릭세네를 희생시키라고 요구할 때는 잔인하게도 보인다.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가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왔을 때 융숭하게 대접했을 뿐 아니라 함께 눈물도 흘린다.

망자의 세계에서 그는 아들 네오프톨레모스가 용맹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했다고 한다.

→ 네오프톨레모스 : 아킬레우스의 아들로 프리아모스 왕을 죽임

아킬레우스는 부모를 공경했고 어머니를 신뢰했으며, 신들의 뜻을 알았을 때는 그 뜻을 실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인간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는 헬레니즘 철학자

들, 특히 스토아학파의 눈에는 자기 정념의 노예가 된 난폭한 인간으로 비쳤다.

→ 우리가 접하는 아킬레우스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방식은 스토아 철학자에 의한 것
아킬레우스를 전쟁광으로 몰아붙인 것은 지혜로운 자의 전형이라고 여겨지는 오뒤세우스와
의 대조를 위한 것

스토아 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세상을 온화한 마
음으로 살아가는 것. 스토아 철학의 가장 큰 정신

그에 상응하는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었다.

스토아 학자들이 생각했던 현자의 삶을 살아간 인물로 오뒤세우스를 표본삼고 아킬레우스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방식이 아니다.

아킬레우스는 『일리아스』에서 스타티우스의 『아킬레이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대문
학작품에 영감을 주었으며, 에우리피데스의 『아울리스와 이피게네이아』 같은 여러 비극 작
품들에도 등장한다.

→ 아킬레우스는 호메로스부터 3대 비극작가에 이르기까지 고대 그리스 비극에 가장 많이
나온다.

▲ 프리아모스 일가의 최후

트로이아성이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에 트로이아에 있었던 영웅들은 다 사망한다. 전쟁의
장본인 파리스도 헤라클레스의 화살에 맞아 죽고 트로이아의 성주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
의 아들에 의해 죽는다. 또한 그 왕비 헤카베는 그리스의 노예로 끌려가 이름 모를 폴리스
에서 굶어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 로마의 시조 아이네이아스

아이네이아스는 앙키세스라고 하는 인간의 왕의 아들로 어머니는 아프로디테다. 앙키세스
는 아프로디테 여신과 사랑을 나누게 된다.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나눈 인간은 둘로, 앙키세
스와 아도니스다. 앙키세스는 그 일을 여기저기 떠돌고 다니다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불벼
락을 맞고 절름발이가 되었다.

이 앙키세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이 아이네이아스다. 아이네이아스는 트로
이아 진영에서 전쟁을 수행으며 트로이아 진영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인물이다.



아버지 Anchises를 업고 떠나는 Aeneias

트로이아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절름발이 왕인 아버지 앙키세스 왕을 업고 목숨을 부지해 성을 빠져나가게 된다.

그리스연합군이 10년간 트로이아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지만, 인근의 성과 마을은 모두 함락시켰다. 따라서 아이네스가 트로이아 성을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인근에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아이네이아스는 오랜 방랑 끝에 정착한다, 그는 그곳을 라비니움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는다. (비극 「아이네이아스 이야기」 참조) 그 아들이 이올로시다. 알바 롱가Alba Longa에서 이올로스의 자식들인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가 태어나 늑대 젖을 먹고 자란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시조를 로물루스와 레무스로 보고 있고 자신의 민족의 뿌리를 알바 롱가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신화에 기초해서 본다면 결국 로마의 조상은 로물루스 레무스가 아니라 아이네이아스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 트로이아 전쟁의 유일한 승리자

이런 점에서 몇몇 신화학자들은 트로이아전쟁의 유일한 승리자는 아프로디테라고 분석한다. 트로이아가 함락되지만 이후 아프로디테 여신은 로마를 통해 천년왕국의 중세를 지배하게 된다. 유럽인들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조는 모두 제우스다. (혈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럽인들의 의식과 관계) 모든 유럽이 제우스가 조상이지만 로마만이 예외다.

▲ 아가멤논의 귀환

아가멤논은 그리스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트로이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아가멤논의 아내는 클뤼타임네스트라로 퓌다레오스와 레다의 딸로 헬레네와 어머니가 같은 자매지간이다. 클뤼타임네스트라는 10년의 전쟁기간동안 아가멤논의 사촌인 아이기스토스와 정을 나눈다. 남편에 대한 정조관념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피게네이아에 관련해 남편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가멤논은 10년의 트로이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카산드라를 데리고 미케네 왕국으로 돌아간다. 카산드라는 프리아모스왕의 딸로 헥토르의 여동생이자 폴릭세네의 언니다. 한때 아폴론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그 카산드라를 아가멤논은 전리품으로 취해서 함께 고향 미

케네로 돌아온다.

제8강 - 트로이아 전쟁 후 영웅들의 운명

(2교시)

◆ 아가멤논 일가의 몰락

※ 학습목표

거듭된 복수에 의한 아가멤논 일가의 몰락과 엘렉트라 콤플렉스에 대해 알아본다.

▲ 아폴론과 카산드라

아폴론에게는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가 많다. 아폴론은 그리스의 모든 남신 중 가장 훌륭한 외모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폴론의 비극적 사랑의 대표적 일화는 다프네라고 하는 요정과의 사랑이다. 다프네는 에로스의 장난에 의해 아폴론의 사랑을 거부하다 월계수로 변신한다. (월계수는 아폴론의 성수가 됨)

아폴론에게는 다프네와의 사랑 말고도 카산드라와의 사랑이 있었다. 아폴론은 계속 카산드라에게 구애하나 카산드라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폴론의 사랑이 아니라 그가 가진 능력 중 (아폴론 - 태양, 음악, 활쏘기, 의술, 예언의 신) 예언의 능력에만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카산드라는 예언의 능력을 준다면 사랑으로 보답하겠다고 한다.

카산드라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 아폴론은 자신의 예언의 능력을 나누어준다. 그러나 카산드라는 약속을 어기고 '신은 인간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지만 인간은 신의 약속을 어길 수 있다.'고 하며 아폴론과의 사랑에 관심이 없었음을 드러낸다. 아폴론은 카산드라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작별의 키스를 하며 그녀의 입술로부터 설득력을 빼앗는다. 그래서 카산드라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어서 누구도 그녀의 예언을 믿지 않는다.

▲ 카산드라의 비전과 아가멤논의 최후

귀국선 안에서 카산드라는 미케네에 도착하는 날 환영 연회에서 클뤼타임네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에게 아가멤논과 자신이 무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운명을 보게 된다. 이 사실을 아가멤논에게 말하지만 카산드라에게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아가멤논은 믿지 않는다.

결국 트로이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당당하게 돌아온 총사령관 아가멤논왕은 환영 만찬에서 무참히 아이기스토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 신을 기만한 대가 - 카산드라의 비참한 죽음

카산드라는 아폴론을 기만한 여인이다. 하급신이 12주신을 기만하거나, 도전에 실패할 경우, 아무리 신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갚는다. (ex> 아폴론과 마르시아스) 하물며 인간이 신이 기만했을 경우, 당연히 목숨으로 갚는다.

그러나 아폴론은 자신을 기만한 카산드라를 죽이지는 않는다. 그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아가멤논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카산드라는 자신이 보았던 모습 그대로 클뤼타임네스트라에게 죽는다.

그리스 신화, 특히 하데스 신화가 갖는 의미는 하데스의 상징인 퀴네에라는 투구에서 볼 수 있다. 퀴네에는 머리에 쓰면 형체가 보이지 않는 하데스의 무기다. 이것의 철학적 의미는 죽음은 인간에게 인식의 대상이 아닌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보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공포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한다. 카산드라는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을 경험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아폴론을 기만한 대가였다.

▲ 엘렉트라 콤플렉스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 아가멤논의 자식으로는 이피게네이아라는 장녀와 그 바로 밑의 딸 엘렉트라, 아들 오레스테스가 있었다.

엘렉트라에게서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나왔다.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아버지에 대한 연모의 감정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는 아버지를 12년 만에 만난다. 전쟁나간 아버지가 무사히 살아오기만 기다린 자식들은 12년 만에 온 아버지가 어머니와 그의 정부에 의해 무참히 죽는 것을 본다. 이때 엘렉트라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다.

▲ 어머니를 살해한 오레스테스

클뤼타임네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에 대한 복수는 오레스테스가 한다. 오레스테스가 엘렉트라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다. 일견 정당한 복수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것은 패륜이 아니지만 부모를 살해한 것은 패륜이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복수의 여신 세 자매, 에리니에스가 복수한다.

▲ 복수의 세 여신 에리니에스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가이아여신과 크로노스에 의해 거세당했을 때 땅과 바다로 그 피가 뿌려진다. 바다로 떨어진 피는 바닷물과 섞이지 않고 거기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난다.(아프로디테 - ‘거품에서 태어난 아이’) 땅은 가이아 여신의 배위이므로 거기 떨어진 피에는 복수의 정기가 있다. 그래서 그 피로부터 가이아는 제우스에의 복수를 위해 기간테스Gigante(가이아의 자식들, Giant(英)거인족)를 탄생시킨다. 또한 복수의 정기로부터 스스로 생명을 얻어 태어난 것이 복수의 세 여신 에리니에스Erinyes다. 이들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뱀이며 손에 횃불을 들고 밤에만 움직인다. 그리고 복수할 대상의 주위를 돌면서 웃음을 터트리는데, 이것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복수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자에게만 복수한다. 대표적인 것이 패륜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왜 이렇게 복수를 무섭고 추악한 이미지로 그렸을까. 당시 그리스에서 인간으로 해선 안 될 일들이 정해져가고 있던 것이다.

▲ 에리니에스의 복수와 아가멤논 가문의 몰락

오레스테스 역시 엘렉트라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대신해 복수한 것이지만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오레스테스는 에리니에스 세 자매의 복수로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미쳐서 일생을 유람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 황금문명을 이끈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 일가는 트로이아 전쟁과 함께 막을 내린다.

▲ 『오뒤세이아』

『일리아드』와 더불어 트로이아 전쟁이 완전하게 구성하려면 『오뒤세이아』를 살펴봐야 한다. 전쟁을 마친 그리스 영웅들과 병사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됐는데 아테나 여신의 총애와 수호를 받았던 오뒤세우스는 집으로 오는 데는 전쟁기간 만큼인 10년이 걸린다. 바다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포세이돈의 노여움 샀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헬리오스의 가축을 잡아먹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이 10년의 모험담이 그려진 이야기가 호메로스의 또 다른 작품인 『오뒤세이아』다. 우리말로 ‘오뒤세우스의 이야기’라는 뜻이다. 『일리아스』가 아킬레우스와 관련된 영웅서사시라면 『오뒤세이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10년 동안의 모험담이다.